



## 아시아 물류표준화 위한 각국 설득작업에 힘쓸 터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  
회장 서병륜

본 기사는 지난 7월 14일자 물류신문 인터뷰 기사로 지난 2대 아시아 파렛트시스템연맹(Asia Pallet System Federation)회장에 이어 금년 3대 회장으로 연임된 서병륜 회장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 편집 실 -

서병륜 前 한국물류협회 회장(LogisALL 회장)이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 : 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3대회장으로 선임됐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역내 각국 정부들이 아시아 물류 표준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설득하는 데 올 인하기로 했다. 아시아 표준파렛트의 각국 국가표준 채택, 아시아 유닛로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이 설득의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

서병륜 회장은 “FAT 체결 확산 등 역내 경제 활성화로 교역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며 “늘어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물류체계가 통일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일된 물류시스템의 근간이 표준 물류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유닛로드 시스템 구축이며, 그 핵심과제가 파렛트와 컨테이너 등 물류기기의 표준화 확산이라는 것이 서 회장의 지론.

▲그동안의 성과 = 오래 전부터 아시아 물류표준화 사업에 열정을 보여온 서병륜 회장은 아시아 물류표준화를 위한 국제활동을 통해 일궈낸 굵직한 성과로 아시아태평양 양지역 표준파렛트 제정과 한-중-일 삼국 정부가 '리터너블 파렛트 무관세화 추진 등 3 국간 물류합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을 꼽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파렛트 국제표준은 2가지형으로, 그 중 하나인 T-11형(1,100mm × 1,100mm)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표준일 뿐 아니라 아시아 파렛트 풀 시스템과 아시아 유닛로드 시스템의 기반 용기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파렛트 국제표준 제정은 서병륜 회장과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의 역동적 국제활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병륜 회장은 “지난 2년간 2대 APSF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와 APSF가 중심이 되어 개설한 아시아 유닛로드 스쿨을 정례화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명의 동남아시아 유닛로드 전문가를 양성해 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들이 앞으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와 역내 유닛로드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인적네트워크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 = 서병륜 회장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한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아시아 역내 국가들, 나아가 인도 등 각국 정부가 아시아 역내 파렛트 표준화 확산과 유닛로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설득하러 다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구체화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